

가족 건강성이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지지로 조절된 성인 애착의 매개효과

여 소 회[†] 이 창 현[‡]


하나임상심리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가족 건강성과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성인 애착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배우자 지지가 성인 애착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기혼 여성 2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가족 건강성, 성인 애착, 결혼 만족도, 배우자 지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성인 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족 건강성과 결혼 만족도 간 관계에서 성인 애착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배우자 지지가 성인 애착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한 결과, 성인 애착과 결혼 만족도 간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배우자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가족 건강성이 성인 애착을 통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배우자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선 연구들을 비교분석하는 가운데 논의하였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기혼 여성, 가족 건강성, 성인 애착, 결혼 만족도, 배우자지지

† 주 저 자: 여소회, 하나임상심리연구소, E-mail: hce96dropbox@hanaimsang.com

‡ 교신저자: 이창현, 하나임상심리연구소, E-mail: diapanna@hanaimsang.com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결혼 만족도는 부부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의미하며, 결혼 생활의 질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김연하, 2016). 사람은 유대감 형성 욕구를 지닌 사회적 존재로, 중요한 타인과의 결혼은 개인의 심리적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수민, 이지연, 2015; Johnson, 2008). 따라서 결혼 만족도는 개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 만족도는 개인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Gottman과 Levenson(2000)에 의하면, 결혼 만족도는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이혼 건수는 30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 기준 10만 2천 건으로 기록되었다(통계청, 2022). 또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부부 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DeSteno, 2014), 의사소통 문제와 결혼 만족도가 이혼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결혼 만족도 수준을 높이고 이혼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성한기, 손영화, 2007; 이경성, 2001). 아울러 국내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통계청, 2017), 부부간 갈등 및 의견충돌 이유에 관한 통계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가치관’과 관련된 응답이었다는 점에서 결혼 만족도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0). 이에 더하여 이혼 가정을 5년 단위로 추적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부모

의 이혼은 자녀의 신체적 및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부정적 결혼관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Judith et al., 2000). 그 외에도 결혼 만족도의 저하는 가족 폭력, 아동 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와도 관련된다(강혜숙, 김영희, 2012; 이훈구, 2004). 이처럼 결혼 만족도는 결혼의 성공 여부, 부부의 안녕감 수준에 결정적인 요소로(윤달아, 2012),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원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김남진, 200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만족도가 개인 및 사회적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특히 기혼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결혼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기혼 남성이 외벌이로 생계 부양을 책임지고, 기혼 여성은 가사 노동을 전담하도록 하는 성역할 고정 관념이 보편적이었다. 다만 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과 동시에 물가 상승으로 맞벌이가 요구되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성이 가족 내에서 맡은 역할 수행은 동일하여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이라는 이중 역할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기혼 여성이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만족도가 기혼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8). 이는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기혼 남성의 결혼 만족도보다 낮다는 선행 연구와도 맥락이 비슷하다(오명자, 김병욱, 김미례, 2008). 이처럼 기혼 여성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결혼 만족도가 비교적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 건강성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안되고 있다(임준호, 김민정, 2019; 서정화, 2013). 가족원들끼리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며, 융통성 있고 개방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건강한 가족 특성은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종희, 박성희, 2018; 마영화, 박성희, 2019). 따라서 가족 건강성은 개인이 가족 내에서 자율성과 친밀성을 경험하고 주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요인이 되는데, 결혼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체계의 포괄적 기능을 반영하는 가족 기능과 달리, 가족 건강성은 유대감,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가족 체계의 관계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옥지원, 2017). 가족 건강성을 지닌 가족을 강한 가족(strong family)으로 정의하는 입장도 있는 만큼,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 건강성은 가족 개인의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가족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권승숙, 2009). 또한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나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하며, 가족 내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처 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김현주, 이해경, 2009). 이소영(2008)에 의하면, 가족 건강성, 특히 신뢰와 지지는 결혼 불안정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건강성은 개인이 결혼 생활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문제들에 대해 원만하게 대처하고 신뢰와 지지

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가족 위기 및 해체를 예방하고 결혼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비교적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낼 일이 많은 농촌에서의 주부들이 가족 건강성이 양호하였으며, 결혼 만족도와 유의한 연관성도 확인된바, 가족 내에서의 친밀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결혼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정혜, 강수정, 2010). 다만 가족 건강성은 가족 구성원 개인보다는 가족 전체 및 상호작용에 보다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인을 위한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두 요인 간의 과정을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개 변인을 탐색하였다.

한편, 가족 건강성은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가족 건강성은 성인 안정 애착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종운, 이정희, 2019; 신현자, 2014; 윤혜림, 2016; 주은지, 최인선, 2022). Bowlby(1969)는 애착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친밀감 및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하였다. 주 보호자로부터 일방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형성되는 유아기 애착을 기반으로, 개인은 자신과 타인으로 이루어진 표상을 내재화 하여 내적 작동모델을 만들게 된다(Bowlby, 1977). 성인은 이를 기반으로 중요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안정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성이 성인 애착으로 이어지게 된다(West, Sheldon, & Reiffer, 1987). 따라서 유아기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었다고 해도 중요한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성인 애착 유형 및 차원은 변화될 수도 있다(Roisman,

Fortuna, & Holland, 2006; Saunders, Jacobvitz, & Zaccagnino, 2011). Muraru와 Turliuc(2012)에 의하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가족관계 내에서의 경험은 이후 애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구체적으로 가족 내의 응집력, 정서적 유대와 적응, 그리고 가족 분화 등의 요소들이 성인 애착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의 적절한 정서 경험 및 상호작용 경험, 즉 높은 수준의 가족 건강성 하에서 성장한 경험은 성인이 된 후 타인과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며, 특히 결혼 후 배우자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반대로, 원가족 내에서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반복될수록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김병수, 2014). 따라서 가족 건강성이 양호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타인과 접촉하며 상호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원가족 내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인정받고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경험들이 부족할 경우, 내적 작동 모델인 애착이 적절히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장면에서 지나치게 거리를 두거나 거리를 좁히는 등 부적절한 양상의 대처가 나타나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인 애착이 결혼 만족도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김수민, 이지연, 2015; 정경아, 김봉환, 2010; 이희숙, 박경, 2008). 애착을 안전한 피난처와 안전기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결혼 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이러한 역할을 상호 호혜적으로 잘 수행할 때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면서 결혼 만족도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진

다는 것이다(이희숙, 박경, 2008; Bowlby, 1988; 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6). 이러한 성인 애착의 개념과 유형 및 차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는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공포형으로 구분한 성인 애착의 4범주 모델이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또한 불안정 애착을 차원적 모형으로 설명하여, 불안과 회피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눈 이론도 있다(한혜영, 한명호, 2006). 이희숙과 박경(2008)의 연구에 의하면, 애착 불안은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는 차원으로 결혼 생활 중에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장된 감정을 표현하는 등 결혼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애착 회피는 타인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상대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여 결혼 생활 중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거나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관계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Mikulincer & Shaver, 2003).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봤을 때, 성인 불안정 애착은 결혼 만족도 수준을 낮추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Cobb, Davila, & Bradbury, 2001; Gallo, & Smith, 2001).

즉, 가족 건강성, 성인 애착, 결혼 만족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세 변인이 매개변인을 포함하는 관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건강성과 성인 애착 간 관계를 매개모형으로 개념화하여, 잠정적 매개변인으로 성인 애착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다만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매개효과만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매개효과에 더하여, ‘대상’을 설

명할 수 있는 조절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모형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배우자 지지는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하며 결혼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된다(김미양, 2020; Reis, & Shaver, 1988). 배우자 지지는 사회적 지지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배우자에게 관심과 공감을 기울이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반응하며, 의존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정, 2015; 전민선, 2020, Kobilik, 2010). 특히 결혼 불안정성을 낮추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하위 요인이 가족의 신뢰와 지지라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배우자 지지는 결혼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이소영, 2008). 아울러 다른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개인은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비교적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utrona, 1996), 결혼 생활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배우자의 지지가 개인이 잘 대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김시연, 서영석, 2010). 다만 실제로 받은 배우자 지지 수준보다는 개인이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실제 개인의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곳으로 보고되어, 부부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각되는 배우자 지지의 정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Dehle et al., 2001; Schwarzer & Knoll, 2007).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가족 건강성이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 애착이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인 애착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자 지지가 조절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

인다. 1970년대, 미국에서 연구가 시작된 건강 가족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 건강성은 개인적 관점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세대를 넘어선 안녕감을 제공하는 데 일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서 과정의 세대 전이가 어머니를 통해 비교적 많이 행해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나, 어머니와 자녀 간의 친밀감이 아버지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들을 고려할 때, 가족 내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김남진, 2005; Rossi, & Rossi, 1990; Umberson, 1992). 즉,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는 가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만족도 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기혼 여성들의 결혼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결혼 만족도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건강성이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지지로 조절된 성인 애착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모형을 탐색하였다. 해당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기혼 여성들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애착은 가족 건강성과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배우자 지지는 성인 애착과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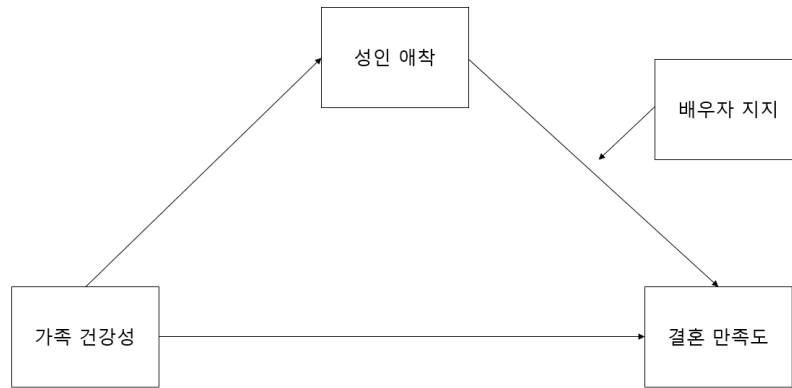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셋째, 가족 건강성과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성인 애착의 매개효과가 배우자 지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측정도구

성인애착 척도

본 연구는 성인애착 측정 목적으로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에 의해 개발된 성인 애착 유형검사인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을 김성현(2004)이 한국어로 타당화 및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haver와 Mikulincer(2002)에 의하면 ECR은 구성타당도와 예언타당도 및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ECR-R는 성인들의 불안정한 애착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 하위요인으로는 불안과 회피 애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 애착은 분리와 버려짐 또는 거부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회피 애착은 의존성과 친밀감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2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6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에 의해 평정된다. 각 척도에 관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회피 수준이 높은 불안정한 애착이, 그리고 낮은 점수일수록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관성 일치도(Cronbach's α)는 .911로 나타났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기혼인 여성 중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를 통해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설문 시작 전 첫 페이지에 연구 동의서를 게재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과 참여자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심리적 불편감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설문 작성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경우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다. 회수된 설문지 222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9부를 제외하여 최종 213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평균 34.49세였으며, 표준편차는 5.02세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척도

가족건강성 측정을 위해 김현주와 이해경(2009)이 제작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에 의해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2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만족도 척도는 Snyder(1979)에 의해 개발된 결혼만족도 검사를 토대로 한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표준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결혼만족도 검사 160문항 중에서 결혼에 대한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미래에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 22문항을 사용한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에 의해서 평정된다.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다는 것은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9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인지한 배우자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수정과 유성경(2016)에 의해 개발된 일-가족 양립에 관한 배우자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에 의해 평정된다. 높은 점수일수록 취업모가 일-가정 양립에 관하여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배우자는 내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함께 병행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배우자는 자녀와 관련된 일들을 스스로 챙긴다', 내가 바쁠 때 배우자는 스스로 가정 일을 대신해준다'와 같이 임금 노

동과 가사 노동을 함께 책임지는 여성의 입장에서 배우자에게 지지 받는다고 지각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3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Macro PROCESS 및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에 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실시를 통해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참가자들의 가족건강성, 성인애착,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에 관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이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가족건강성, 성인애착,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넷째, PROCESS Macro model 14를 적용함으로써, 성인애착 및 결혼만족도를 준거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가족건강성과 결혼만족도 간 성인애착의 매개효과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등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조명등 분석법(floodlight analysis; Spiller et al., 2013)이라고도 알려진 존슨-네이만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을 적용하여 상호작용 탐색(probing an interaction)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단순기울기 분석으로 알려진 특정값 선택방법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기울기 분석을 적용하면

배우자지지에 대한 일부의 특정값을 선택하게 되는데(ex. $M, M \pm 1SD$), 이러한 선택은 자의적인 선택이라는 제한점을 지님과 동시에 표본에 의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존슨-나이만 방법을 적용하면 조건부효과와 표준오차의 비율이 정확히 $t_{critical}$ ($p = \alpha$ 에 해당하는 t 의 임계치)값을 가지는 배우자지지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결 과

우선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 및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은 배우자지지 및 결혼만족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각각 순서대로 $r = .786, p < .01$; $r = .735, p < .01$), 성인애착 간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 = -.481, p < .01$). 아울러, 성인애착은 배우자지지 및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445, p < .01$; $r = -.414, p <$

.01). 마지막으로 배우자지지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 = .773, p < .01$). 한편,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Finch와 West(1997)는 각 변수들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경우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제안한 바,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 Macro model 14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족건강성을 예언 변인으로 하고 성인애착을 준거 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는 $B = -2.155(p < .001)$ 으로 가족건강성은 성인애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 성인애착, 배우자지지, 그리고 성인애착과 배우자지지 간의 상호작용항을 예언 변인으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준거 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각각 순서대로, $B = 0.774, p$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N = 213$)

| | 1 | 2 | 3 | 4 |
|----------|---------|---------|--------|-------|
| 1. 가족건강성 | 1 | | | |
| 2. 성인애착 | -.481** | 1 | | |
| 3. 배우자지지 | .786** | -.445** | 1 | |
| 4. 결혼만족도 | .735** | -.414** | .773** | 1 |
| 평균 | 39.59 | 132.04 | 89.28 | 76.77 |
| 표준편차 | 5.66 | 25.33 | 14.60 | 14.62 |
| 첨도 | 1.92 | 0.29 | 1.36 | 0.85 |
| 왜도 | -0.86 | -0.15 | -0.84 | -0.72 |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모형에 포함된 회귀분석 결과(N = 213)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B | SE | t | R ² | F |
|------------|-------|--------|-------|-----------|----------------|-----------|
| 가족건강성 | 성인애착 | -2.155 | 0.270 | -7.976*** | 0.232 | 63.618*** |
| 가족건강성 | | 0.774 | 0.177 | 4.366*** | 0.652 | 97.561*** |
| 성인애착 | 결혼만족도 | -0.438 | 0.162 | -2.709** | | |
| 배우자지지 | | -0.103 | 0.241 | -0.426 | | |
| 성인애착×배우자지지 | | 0.004 | 0.002 | 2.620** | | |

* $p < .05$, ** $p < .01$, *** $p < .001$.

< .001; $B = -0.438$, $p < .01$), 배우자지지는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103$, ns.).

가족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며($B = 1.899$, $p < .001$),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난 바($B = 1.801$, $p < .001$), 두 변인 간의 관계는 불안정 성인애착에 의해 불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족건강성이 불안정 성인애착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 즉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추정치는 .098로 나타난 바, 이는 가족건강성이 1점 증가할 때 불안정 성인애착을 통해 결혼만족도를 .098점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002와 .261로 나타난 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안정 성인애착과 배우자지지의 상

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004$, $p < .01$). 이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변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배우자지지의 수준이 오를수록(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갈수록) 비교적 부적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뜻한다. 즉,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상태를 나타냈으며, 이는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 효과가 유의함을 표시한다.

다음으로, 배우자지지의 어느 영역에서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찾아보기 위해 존슨-네이만 방법(Johnson-

표 3. 가족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N=213)

| 경로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95% 신뢰구간) |
|----------------|----------|----------|------------------|
| 가족건강성 -> 결혼만족도 | 1.899*** | 1.801*** | .098(.002, .261) |

주. 모든 계수는 비표준화된 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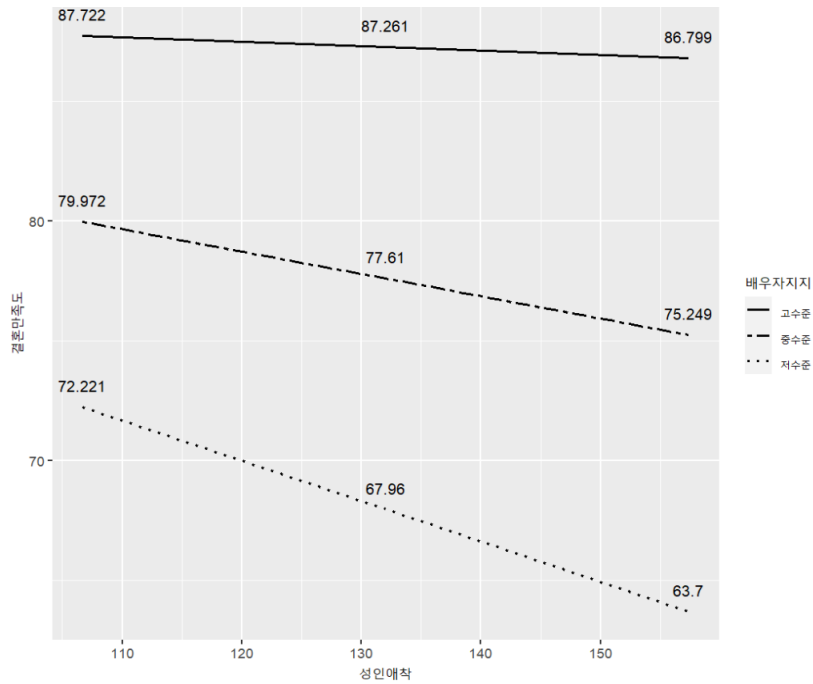


그림 2.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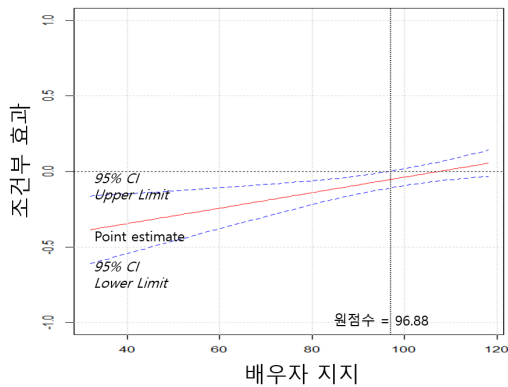


그림 3.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주. 적색 실선은 조건부 효과의 점추정치이며, 청색 점선은 각각 신뢰구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나타냄.

Neyman technique(Spiller et al., 2013)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탐색을 실시하였다. PROCESS에서 제공하는 존슨-네이만 분석을 통해 산출된 배

우자지지 원점수에 따라 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점추정치 및 신뢰구간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존슨-네이만 분석을 이용해 유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 표 4과 그림 3에서 보듯이, 배우자지지의 원점수가 96.88점을 하회하는 구간에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반면, 96.88점 이상인 구간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우자 지지가 96.88점 미만인 구간에서 배우자지지의 증가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증가에 유의한 변동이 일어나지만, 배우자지지가 높은 구간(96.88점 이상)에는 배우자지지가 증가하여도 성인애착의 증가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증가에 유의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로, 전체 참가자의 66.19%에 해당하는 인원이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의 상한값 및 하한값이 각각 -0.021과 -0.001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추가로,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라 불안정 성인애착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표 5). 가족건강성이 불안정 성인애착을 경유하여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배우자 지지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인 조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Effect=.271, 95% 신뢰구간: .063 ~ .560). 반면, 배우자 지지가 평균에 있는 점수 조건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Effect=.108, 95% 신뢰구간:

-.004 ~ .258). 마지막으로, 배우자 지지가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인 조건에서 역시 불안정 성인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02, 95% 신뢰구간: -.127 ~ .143).

논 의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가족 건강성, 불안정 성인 애착, 결혼 만족도, 배우자지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족 건강성과 결혼 만족도 간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 애착의 매개효과와 배우자지지가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중점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건강성, 불안정 성인 애착, 결혼

표 4.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유의성 검증(N = 213)

| 변수 | INDEX |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 | |
|-------|--------|------------------------------|--------|--------|
| | | Boot S.E. | LLCI | ULCI |
| 배우자지지 | -0.009 | 0.005 | -0.021 | -0.001 |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N = 213)

| 배우자 지지 수준 | 배우자 지지 | Effect | Boot S.E. | LLCI | ULCI |
|------------|---------|--------|-----------|--------|-------|
| 저수준(M-1SD) | 73.240 | 0.271 | 0.130 | 0.063 | 0.560 |
| 중수준(M) | 91.000 | 0.108 | 0.066 | -0.004 | 0.258 |
| 고수준(M+1SD) | 103.000 | -0.002 | 0.067 | -0.127 | 0.143 |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만족도, 배우자지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가족 건강성은 결혼 만족도, 배우자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먼저, 가족 건강성과 결혼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이 연구 결과는 가족 건강성이 결혼 불안정성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선행 연구와 맥락이 같으며(이소영, 2010), 가족 건강성이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박성호, 2001; 서정화, 2013; 이정은, 이영호, 2000). 또한 가족 건강성과 배우자지지의 정적 상관은 가족 건강성이 양호할수록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다는 이론적 내용과 일치한다(유영주, 1994). 한편 가족 건강성은 불안정 성인 애착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및 상호작용이 원활할수록 불안정 성인 애착 수준이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종운, 이정희, 2019; 최인선, 주은지, 2022). 또한 불안정 성인 애착은 배우자지지와 결혼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먼저, 불안정 성인 애착과 배우자지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연구 결과는 안정 애착에 비해 불안정 애착을 지닌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으나,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신선임, 2015). 또한 불안정 성인 애착과 결혼 만족도 간 부적 상관도 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유수진, 류정희, 2017; 정경아, 김봉환, 2010). 마지막으로 배우자지지와 결혼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및 부부가 긍정적인 지지를 상호 교환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지민, 2015; Julien, & Markman, 1991). 즉, 본 연구 결과는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개입을 고려할 때, 가족 건강성과 불안정 성인 애착, 배우자지지에 대한 탐색 및 개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불안정 성인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가족 건강성과 결혼 만족도 간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 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건강성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선행 연구들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가족 건강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족 건강성이 불안정 성인 애착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연구 결과(김종운, 이정희, 2019; 최인선, 주은지, 2022), 그리고 불안정 성인 애착과 결혼 만족도가 부적 상관을 나타낸 연구 결과(유수진, 류정희, 2017; 정경아, 김봉환, 2010)를 종합한 결과이다. 즉, 가족 건강성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혼 생활에서의 만족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실제 결혼 생활에 적용해보면, 가족 건강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기능적이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개인이 안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우며, 이는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안전 기지나 안식처의 역할을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유영주, 1994; 이희숙, 박경, 2008).

셋째,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족 건강성이 불안정 성인 애착을 경유하여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배우자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지지 수준이 평균에서 1표준편차 이하인 참가자들에게 가족 건강성이 불안정 성인애착을 경유하여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배우자지지 수준이 평균 또는 평균에서 1표준편차 이상인 참가자들에게는 가족 건강성이 불안정 성인애착을 경유하여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건강성 성향을 가진 사람이 불안정 성인애착을 경험하면서 결혼 만족도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보다는 그가 지닌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구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배우자지지의 대략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정도에 있는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가족건강성이 불안정 성인애착을 경유하여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부호가 양(+의) 방향이었으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지지가 대략 평균 수준이거나 혹은 그 이상 수준인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가족건강성이 불안정 성인애착을 경유하여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불안정 성인애착을 매개한 가족 건강성의 간접효과는 주로 배우자지지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나며, 그때의 방향은 정적 방향이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지지가 낮아질 때

불안정 성인애착을 매개한 가족 건강성의 간접효과가 결혼생활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가족 건강성 수준의 저하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결혼생활에서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가족 건강성으로부터 결혼 만족도로 이어지는 일반적 경로라는 것을 시사함과 동시에 그러한 경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보다는 개인이 지닌 배우자지지 수준에 따라 개인들은 상이한 양상의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적용했을 때, 가족 건강성이 양호하지 않고 결혼 만족도가 낮은 내담자의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지지적인 배우자의 역할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지지적인 역할을 제공하여 가족 건강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다면 결혼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 건강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정 성인 애착의 역할을 함께 탐색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원 간 유대 관계가 깊으며 융통성 있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가족의 특성은 결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보단 주로 불안정 성인 애착이 결혼 만족도에 주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 방식을 확립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 건강성이 불안정 성인 애착을 경유하여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에 더하여, 매개효과를 배우자지지가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 성인 애착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 및 치료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낮은 수준의 결혼 만족도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는 내담자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부부 상담을 제공하여 배우자지지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내담자의 결혼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지지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장기간의 치료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획득된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바(Hesse, 2008; Main, Hesse, & Goldwyn, 2008), 배우자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담자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내적 모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업 내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성의 특성상, 남성보다 결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서적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바, 낮은 수준의 결혼 만족도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개입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자기 보고 방식의 설문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졌기에 자료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온라인 설문 및 자기보고 설문의 특성 상, 연구 대상자들이 실제 경험보다 축소 혹은 확대하여 응답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타당성을 높인 평가 방법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을 진행하였다. 같은 기혼 여성 집단이더라도 기혼자의 수가 많은 만큼 서로 이질적인 특성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결과가 다소 편중되거나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층화표집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한다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진행할 때, 가족 건강성에 대한 성인용 척도를 타당화하여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숙, 김영희 (2012). 부부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상담학연구*, 13(6), 2861-2880.
- 권승숙 (2009). 가족자원봉사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8(1), 35-51.
- 김남진 (2005). 부부의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양, 박원주 (2020). 아동기 외상경험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6), 503-518.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수민, 이지연 (2015). 기혼 여성의 불안정 애착유형과 결혼만족도와 관계에서 기본심리적 욕구 충족과 부정적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251-264.
- 김수정 (2015).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지지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일-가족 향상의 매개효과: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유성경 (2016). 일-가족 양립에 관한 배우자지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971-1002.
- 김수진 (2021). 성인 애착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김시연,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 김연하 (2016). 한국 아동패널 2008-2012 자료를 활용한 자녀 출산 후 5 년간의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궤적.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7(4), 47-56.
- 김종운, 이정희 (201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성인애착, 사회적 지지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677-700.
- 김종희, & 박성희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3), 255-266.
- 김현주, 이해경 (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청소년의 지각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3), 33-59.
- 마영화, & 박성희 (2019).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분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11), 31-59.
- 박성호 (2001).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서정화 (2013). 기혼여성의 가족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서주현 (2021).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과 공동대처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논문.
- 성한기, 손영화 (2007). 기혼여성의 성가치관이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75-196.
- 신선임 (2015).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 적응. *청소년학연구*, 22(4), 1-21.
- 신현자 (2014).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갈등의 관계: 성인애착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 유영주 (1997).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 자녀 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 오명자, 김병옥, 김미례 (2008). 중년기 여성의 주부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99-520.
- 오은숙 (2019). 기혼남녀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지원 (2017).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2), 611-619.
- 유수진, 류정희 (2017).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적 대처의 중다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9(2), 309-327.
- 유영주 (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한국아동학회학술발표논문집*, 25-42.
- 윤달아 (2012). 정서표현 양가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정서조절방략의 매개 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림 (2016). 원가족 건강성, 성인애착, 부부 의사소통능력과 결혼초기 부부친밀감의 인과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97-119.
- 이소영 (2010). 결혼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가족 건강성 요인 연구. *사회복지실천*, 9(0), 5-32.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531-548.
- 이지민 (2015).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가족과 문화*, 27(4), 112-136.
- 이훈구 (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4), 47-53.
- 이희숙, 박 경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임준호, 김민정 (2019). 맞벌이가족이 인식한 원가족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7), 807-816.
- 전민선 (2020).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역할과 가사분담 만족도의 조절역할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4), 1293-1308.
- 정경아, 김봉환 (2010).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인간이해*, 31(1), 89-104.
- 최인선, 주은지 (2022).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성인애착의 관계: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2), 238-248.
- 통계청 (2018). 국가통계포털. 2023. 05. 15 검색. <http://www.kosis.kr>.
- 통계청(2022). 2021년 이혼통계결과. <http://www.kosis.kr>
-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4), 935-952.
- Bowlby, J. (1969). Disruption of affectional bonds and its effects on behavior. *Canada's mental health supplement*.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II. Some principles of psychotherapy: The Fiftieth Maudsley Lecture (expanded vers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5), 421-431.
- Bowlby, J. (1988).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 1-10.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3), 257-278.
- Cobb, R. J., Davila, J., & Bradbury, T. N. (2001). Attachment secu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31-1143.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in couples: Marriage as a resource in times of stress*. Sage Publications.
- Dehle, C., Larsen, D., & Landers, J. E. (2001). Social support in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9(4), 307-324.
- DeSteno, David (2014). *신뢰의 법칙*. 경기도: 웅진지식하우스, 2019.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
- Gallo, L. C., & Smith, T. W. (2001). Attachment style in marriage: Adjustment and responses to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2), 263-289.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 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3), 737-745.
- Hesse, E. (2008).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otocol, method of analysis, and empirical studies*.
- Johnson, S. (2008). *Hold me tight: Seven conversations for a lifetime of love*. Little, Brown Spark.
- Julien, D., & Markman, H. J. (1991).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and marital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4), 549-568.
- Koblik, M. M. (2010). *Investigation of Social Support in Newlywed Couples as a Predictor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 Main, M., Hesse, E., & Goldwyn, R. (2008). *Studying differences in language usage in recounting attachment history: An introduction to the AAI*.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Reis, H. T.,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lationships and Interventions*, ed. S. Duck. Chichester: Wiley. In press.
- Roisman, G. I., Fortuna, K., & Holland, A. (2006). An experimental manipulation of retrospectively defined earned and continuous attachment security. *Child Development, 77*(1), 59-71.
- Saunders, R., Jacobvitz, D., Zaccagnino, M., Beverung, L. M., & Hazen, N. (2011). Pathways to earned-security: The role of alternative support figure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3*(4), 403-420.
- Schwarzer, R., & Knoll, N. (2007). Functional roles of social support within the stress and coping proces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2*(4), 243-252.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2), 133-161.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West, M., Sheldon, A., & Reiffer, L. (1987). An approach to the delineation of adult attachment. Scale development and reliabilit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5*(12), 738-741.

1차원고접수 : 2023. 12. 01.

심사통과접수 : 2024. 01. 18.

최종원고접수 : 2024. 03. 30.

The Effect of Family Health on Marriage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Mediating Effects of Adult Attachment Regulated by Spouse Support

Sohee Yeo

Lee Changhyun

Hanaimsang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dult attachmen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lth and married women's marriage satisfaction, and to verify whether spouse support regulates the medi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Therefore, in order to collect data on these variables, data were collected using an online survey method for 213 married women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lth, adult attachment, marriage satisfaction, and spouse support all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the medi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lth and marriage satisfacti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riag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as a result of confirming whether spouse support reg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riage satisfaction. Fourth,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it was verified that the effect of family health on marriage satisfaction through adult attachment was controlled by spouse support. Based on thi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of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Married women, Family health, Adult attachment, Marriage satisfaction, Spouse support